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85마리 지리산 누빈다

65마리 4세대에 걸쳐 태어나... "적정 개체수 56~78마리"

경쟁서 밀린 곰 광양 등지로 이동...복원사업 재정립 필요

지리산국립공원에 100마리에 달하는 반달가슴곰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적정 두수에 맞는 복원 사업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 85마리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행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 가운데 69마리는 야행에서 4세대에 걸쳐 태어난 곰이다. 나머지 16마리는 복원을 위해 정부가 방사했다. 85마리 가운데 31마리는 위치 추적기 등을 이용해 위치와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54마리는 장비를 부착할 수 없어 곰의 털이나 배설물, 흔적, 무인 카메라 등으로 개체 수를 파악·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생물보전원 측은 그동안의 번식률을 반영하

면 울겨울 동면 중 5~10마리의 새끼가 더 태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봄이면 90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 활동하게 된다. 지난 2002년 환경부가 국립공원공단을 곰 복원 주제로 지정하면서 곰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8년 목표보다 2년 앞당겨 56마리를 복원시키는 데 성공한 뒤 해마다 증식 개체 수가 늘어났다. 서식지 확보 경쟁에서 밀려난 곰은 경북 김천 수도산, 광양 백운산, 무주 덕유산 등지로 이동하기도 했다. 지리산 이외 장소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면서 서식지를 확보하려는 곰과 사람의 공존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중 증식 야생 복원에서 서식지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2차 반달가슴곰 로드맵(2021~2030)을 시행하고 있다. 장이권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의 적정 개체수는 56~78마리이며 가장 현실적인 수치는 64마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반달가슴곰 적정 개체 수를 기반으로 한 복원사업계획이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운희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보전기획부장은 "연구자의 환경 조건과 대입 인자에 따라 서식 추정 개체 수가 다를 수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 수용 능력 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복원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환경운동가(67)는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지난 2018년 '최소 존속 개체군'에 도달했다는 점은 앞으로 100년 또는 1000년 동안 99% 이상 생존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이제 앞으로 곰을 계속 번식 시킬지, 몇 마리까지 증식할지, 어디까지 서식지를 확대할 것인지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무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양시 "태아부터 노년까지 촘촘 복지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등 41개 사업 토론회

광양시가 태아부터 노년까지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신설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등 41개 복지사업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광양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복지정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광양시민의 특색있는 광양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역공헌인재 마일리지 제도 신설'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재취업 방안'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등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분야의 복지시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에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관련 조례안 마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중호 광양시 감동시대추진단장은 "국가, 전남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매우 광양에서만 추진하는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민선 8기 추진전략 중 하나인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지난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규 복지정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내년 추진할 41개 복지사업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박차

석유화학 대체 친환경 산업 전문가 자문위 첫 회의 내년 하반기 특구 신청 목표

여수국가산업단지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억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화학산업으로도 불린다. 식물 등을 활용하거나 효소,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화학 원료 물질을 만드는 산업이다. 생산 과정에서 석유나 석탄이 사용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고 자연에서의 분해도 빨라 탄소 중립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에 대체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세계 공급망 위기와 2050 탄소 중립 의무 부담,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을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해왔다.



여수시가 지난 5일 여수국가산단을 '화이트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지난 10월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같은 달 화이트바이오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달 5일에는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에서 첫 자문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는 관련 산업 분야의 수요와 공급 기업을 집적화해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과 실증,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며 산업생태계를 완성한다. 이달 현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율주행 분

야에 10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분야는 총 복 오송을 중심으로 의료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됐으나, 화이트바이오 특화단지 추진으로는 전남이 처음이다. 여수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특구 신청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수차례 더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가진 석유화학산업의 강점을 살려 화이트바이오 산업으로 선순환해 기업들의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김순호 구례군수 '올해의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한국언론인연합회 선정

김순호(사진) 구례군수가 최근 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이상열 전 세종대 석좌교수·전 MBC 보도본부장) '올해의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한국언론인연합회는 김 군수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섬진강 홍수 피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생태관광을 접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연대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 공로도 인정했다. 김 군수는 자연 기반 탄소중립 흡살리기 사업



을 추진하고 치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통한 주민 정책 참여기회 확대, 복지공동체 강화 등도 이번 수상에 영향을 미쳤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시, '가든 컬렉션 레드' 수국 신품종 개발

국립종자원 품종 보호 등록

순천시가 국가정원표 순천 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사진) 신품종을 개발했다. 순천시는 '가든 컬렉션 레드' 품종에 대한 국립종자원 품종 보호 등록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특허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한다. 순천시는 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신품종 육종연구를 지속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순천 수국을 품종 보호 등록해 자체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순천 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품종은 국내에서 육성한 수국 중 최초의 빨간색 계열이다. 화려하고 다른 품종보다 양지에서 비교적 잘 견뎌 여름철 정원 식물 소비 확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했다. 수국은 여름 정원 식물로 선호도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품종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국산 품종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 식물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우리 품종을 확대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경영비용을 덜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만 간척지 신규 도로명 부여

첨단미래로·수번호늘길 등

고흥군이 도로명이 없는 고흥만 간척지 도로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했다. 고흥만 간척지에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도로명 주소가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렵고 홍보 및 농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주민 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부여·고시했다.

스마트팜 거점 지역임을 상징하고자 첨단미래로, 스마트팜길, 스마트축산길, 수번호늘길 등의 도로명을 부여했다. 주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 중 도로명주소 등 주소 정보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이 찾고자 하는 위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농업 단지 및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을 우선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경찰서 '정성치안 보고회' 개최

순천경찰청은 지난 5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정성치안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순천경찰서 모든 과장과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성치안의 역동적인 전개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은 치안의 최일선에서 시

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성치안 방안을 공유했다. 김남희 순천경찰서장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시민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보답해 줄 것"이라며 "활발한 정성치안 전개를 위해 순천경찰 모두가 굳건히 다잡하자"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